

여름방학에 계곡간일

안희정

하늘이 타오르는 듯 해가 찡찡한 날이다.

"우리 날씨도 좋은데 계곡이나 놀러갈까?" 라고 말씀하시며 할머니께서 짐을 싸고 있었다. 짐을 다싸고 차에 탔다. 길에 방지턱이 이 많았는데, 무시하고 잠을 잤다. 계곡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바로 물놀이를 하던 도중 나는 너무 지쳐서 큰 오빠랑 쉬고 있었다. "밥 먹자!" 할머니께서 밥먹자고 불러서 나가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있었다 너무 맛있어서 밥 한그릇을 뚝딱 해버렸다. 밥을 다먹고 또 차에가서 잠을 잤다. 사촌동생과 작은 오빠가 다 놀고 집으로 갔다. 나는 너무 졸려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지듯 잠을 잤다